

전기차 업체들 광주로 몰려온다

본사 이전, 공장·연구소 설립 잇따라

‘EV 클러스터’ 추진…2012년 상용화

광주가 전기자동차 메카로 뜨고 있다. 전기차 업체들이 전지·모터 등 핵심부품 산업이 발달한데다 연구 역량 등 인프라가 탄탄한 광주로 속속 밟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EV(electric vehicle) 클러스터’ 구축을 꾀하고 있어 광주가 국내 전기차 사업을 선도하는 시범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과 전자부품연구원(KETI) 광주본부, 관련 업체에 따르면 지엔디원텍·윌링스·탑알앤디 등 전기차 업체와 광주시, 호남경제권 지원단, 전자부품연구원 등 관련 기관이 전기차 상용화를 목표로 조만간 ‘EV 클러스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들은 ‘EV 클러스터’를 통해 전기차의 핵심부품 국산화와 완성차 생산,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개조 등 다양한 기술개발과 시험생산, 실증을 해나갈 방침이다. 내년까지 기술개발을 마치고 2012년 초 전기버스·전기승용차·농업용 전기트랙터 등 5~6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엔디원텍·윌링스·아드반텍 등 7~8개 업체가 광주·전남에 본사 이전과 양산공장 설립 등을 서두르고 있다. 또 (주)뉴모텍과 (주)파루, (주)테크원 등은 광주에 기업연 구소를 설립했다.

이들 업체는 호남경제권 선도산업

의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품소재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들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지엔디원텍(대표 김정수)은 내년까지 광주에 150억원을 투자해 인버터 생산라인을 설립, 내년부터 연 1만개의 인버터를 생산할 계획이다. 지엔디원텍은 첨단지구 등에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의 윌링스(대표 안강순)는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기변환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컨버터·인버터 양산공장 설립을 위해 부지 매입을 마치고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다.

광주 업체인 탑알앤디는 지엔디원텍과 손을 잡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속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며 저공해 LPG엔진 개조 업체인 경기파주의 이룸지엔지도 ‘EV 클러스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에는 CT&T가 내년 2월까지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에 1000억원을 투자해 16만5000㎡ 부지에 공장 등을 건립하고 본격적인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경기 광택의 아드반텍(대표 이근형)은 담양에 공조 모듈 생산라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잇따라 광주에 본사 이전과 생산공장 설립 등을 추진, ‘EV 클러스터’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입주업체인 (주)탑알앤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다목적 수륙양용 전기차(사진 위), 무인 소방로봇 전기차.

이밖에 대기업 2~3곳과 기아차 협력업체 등도 사업다각화를 모색하며 전기차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EV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광주가 전기차 시범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경제권 지원단 이준향 PD는

“광주는 전기차의 핵심인 전지와 모터에 강하다”며 “내년까지 전기차의 핵심 부품과 완성차를 개발해 2012년 초 25인승 전기버스·전기승용차·농업용 전기트랙터 등 5~6개 제품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개정 노조법 순회 설명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7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광주는 다음달 8일, 목포는 11일, 여수는 16일 잇따라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노동부가 근로시간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내용과 노사협약의 결과를 반영해 지난 14일 근로시간제 한도를 고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단위노동비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 중 3분기 연속 단위노동비용이 줄어든 3개국 중 하나로 조사됐다.

24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지난해 4분기의 단위노동비용을 보면 사태가 발발한 2008년 3분기와 비교했을 경우 4.7%가 줄어 조사 대상 23개 국가 중 최대였다.

연평균 고용증가율 2.2%…제조업 크게 웃돌아

지난 95년부터 2007년까지 서비스 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이 2.2%에 달해, 제조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24일 ‘서비스 산업의 고용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95년부터 2007년 서비스 산업의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2.2%로, 제조업의 -1.5%를 크게 상회했다”며 “여기에는 소비 등 국내최종수요 증가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자수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95년 53.8%에서 2007년 63.6%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취업자수 비중은 23.1%에서 17.7%로 감소했다.

서비스 산업 내에서는 연구개발과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교육, 의료, 보건 분야 취업자 비중이 특히 늘었다.

연구원은 “서비스 산업에서 고

용확대 정책은 업종별로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며 “내수의존형 업종은 서비스 품질인증 및 표준화, 중산층 대상의 잠재수요 개발 등 국내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서비스수출계약 인증제 도입 등 수출촉진 정책이 고용증대에도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새로운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는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서비스, 항공기 정비센터(MRO), 녹색금융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일자리 찾으려면 서비스산업에서

한국 단위노동비용 감소 폭 OECD국 중 최대

수출 경쟁력 강화됐지만 근로자 소득은 줄어

한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단위노동비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 중 3분기 연속 단위노동비용이 줄어든 3개국 중 하나로 조사됐다.

24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지난해 4분기의 단위노동비용을 보면 사태가 발발한 2008년 3분기와 비교했을 경우 4.7%가 줄어 조사 대상 23개 국가 중 최대였다.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위노동비용은 명목 임금이 줄어들거나 생산성이 높아질 때 감소하는데 한국은 경제 위기 여

파로 명목 임금 감소폭이 생산성 감소보다 커지 때문에 풀이된다.

즉 단위노동비용 감소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됐지만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은 경제위기를 맞아 OECD 회원국 중 최대 폭으로 낮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전후로 단위노동비용 감소 폭이 커던 것은 환율 급등, 소득 정체 등이 작용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 광주·전남 토지 16만5000㎡ 공급

LH, 광주 수완·순천 연향·여천 돌산지구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가 지역내 사업지구의 해제 폐지 등 총 121필지(16만5000㎡)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광주 수완지구 공동주택용지·상업용지·단독 주택지, 광주 신창지구 근린생활용지·단독주택지, 광주 일곡지구 단독주택지, 광주 첨단지구 상업용지, 순천 연향2지구와 여천 돌산지구 점포 겸용 등 광주·전남 전 사업지구를 포함하고 있다.

면적과 예정가는 광주 수완지구의

경우 ▲공동주택 1만7830~3만3036㎡, 3.3m당 180~195만원 ▲주거전용 265~416㎡, 108만~136만원 ▲상업용지 295~279㎡, 44만~513만원 등이며, 신창지구는 ▲점포겸용 221~242㎡, 182만~213만원 ▲주거전용 283~358㎡, 120만~122만원 ▲근린생활시설 328㎡, 280만원이며, 대금은 최대 3년 분납 조건이다.

광주 일곡지구는 ▲점포겸용 248~269㎡, 160만~174만원 ▲주거전용 333㎡, 110만원선, 광주 첨단지구는 일반 상업 1039㎡, 272만원이

다.

대불공단은 근린상업 927~1965㎡, 75만~83만원이며, 대금은 최대 3년 분납조건으로 공급된다.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해약을 원할 때 계약금을 포함한 원리금을 반환하는 원금보장형 제도인 ‘토지리턴제’를 적용하고 대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이번에는 리턴 기간까지의 법정이자(5%)를 가산해 반환하는 점이 달라졌다.

분양 일정은 25일 매타고공고를 하고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을 받아 30일 계약을 맺는다. 분양 및 입찰은 LH토지 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 서면 가능하다.

문의는 LH 광주전남본부 토지공급팀 062-360-3163~4.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금리 등 불법 채권추심 여전

금감원 지난달까지 5693건 상당 181% 증가

대부업, 유사수신과 같은 사금융으로 인한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대출사기 등 피해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사금융에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달까지 상당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당건수가 5693건으로 작년 동기(205건)보다 181.1%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엔디원텍·윌링스·아드반텍 등 7~8개 업체가 광주·전남에 본사 이전과 양산공장 설립 등을 서두르고 있다. 또 (주)뉴모텍과 (주)파루, (주)테크원 등은 광주에 기업연 구소를 설립했다.

상당유형으로는 사금융피해 관련 상당이 4881건으로 85.7%를 차지했고, 금융지원 상당이 812건으로 14.3%였다.

사금융피해 상당내용은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당이 4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법 채권추심(9.9%), 고금리(0.4%), 대출사기(9.2%), 종

기금원 지난달까지 5693건 상당 181% 증가

대부업, 유사수신과 같은 사금융으로 인한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대출사기 등 피해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사금융에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달까지 상당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당건수가 5693건으로 작년 동기(205건)보다 181.1%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엔디원텍·윌링스·아드반텍 등 7~8개 업체가 광주·전남에 본사 이전과 양산공장 설립 등을 서두르고 있다. 또 (주)뉴모텍과 (주)파루, (주)테크원 등은 광주에 기업연 구소를 설립했다.

상당유형으로는 사금융피해 관련 상당이 4881건으로 85.7%를 차지했고, 금융지원 상당이 812건으로 14.3%였다.

사금융피해 상당내용은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당이 4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법 채권추심(9.9%), 고금리(0.4%), 대출사기(9.2%), 종

기금원 지난달까지 5693건 상당 181% 증가

대부업, 유사수신과 같은 사금융으로 인한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대출사기 등 피해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사금융에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달까지 상당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당건수가 5693건으로 작년 동기(205건)보다 181.1%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엔디원텍·윌링스·아드반텍 등 7~8개 업체가 광주·전남에 본사 이전과 양산공장 설립 등을 서두르고 있다. 또 (주)뉴모텍과 (주)파루, (주)테크원 등은 광주에 기업연 구소를 설립했다.

상당유형으로는 사금융피해 관련 상당이 4881건으로 85.7%를 차지했고, 금융지원 상당이 812건으로 14.3%였다.

사금융피해 상당내용은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당이 47.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법 채권추심(9.9%), 고금리(0.4%), 대출사기(9.2%), 종

기금원 지난달까지 5693건 상당 181% 증가

대부업, 유사수신과 같은 사금융으로 인한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대출사기 등 피해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사금융에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달까지 상당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당건수가 5693건으로 작년 동기(205건)보다 181.1%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엔디원텍·윌링스·아드반텍 등 7~8개 업체가 광주·전남에 본사 이전과 양산공장 설립 등을 서두르고 있다. 또 (주)뉴모텍과 (주)파루, (주)테크원 등은 광주에 기업연 구소를 설립했다.

상당유형으로는 사금융피해 관련 상당이 4881건으로 85.7%를 차지했고, 금융지원 상당이 812건으로 14.3%였다.

사금융피해 상당내용은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당이 47.3%로 가장 많았다.

</